

함평 다이너스티CC, 복지시설에 쌀 140포



함평 다이너스티CC(대표 차성만)는 지난 12일 개최한 제9회 회원 친선의 날 행사에서 모은 쌀 140포대를 함평군 학교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 중소기업 '아인' 교육청에 아동복 300벌



광주·전남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인 모임인 '아인'은 15일 관내 농촌 소규모 학교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아동복 300벌을 광주시교육청에 기증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농협, 정도경영 실천결의·사고예방 협의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최근 관내 지역농협 자정감사역과 광주검사국 검사역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도경영 실천 결의 및 사고예방협의회'를 가졌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북구, 임동 대원시장 공영주차장 준공



광주 북구는 최근 송광은 북구청장과 구의원,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동 대원시장 뒤 인근에서 썬지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열고 관계자들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북구청 제공>

뜰채잡이 문화 지키기 위해 7년째 울돌묵 지키는 박동혁 씨

“뜰채로 송어 낚는 맛 짜릿합니다”

해남과 진도가 만나는 좁은 해협을 '명랑해협'이라고 부른다. 1597년 9월 충무공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들이 선박 12척으로 일본 수군 130여 척을 물리친 명랑대첩이 펼쳐진 장소다. 한눈에 보기에 물살이 거센 이곳은 조류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린다고 해서 '바위가 우는 것 같다'는 뜻의 '울돌묵'이라고 불린다.

울돌묵에서는 매년 이맘때면(4월 중순부터 7월까지) 바위 위에서 뜰채로 송어를 잡는 이색 풍경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 7년간 뜰채로 송어를 잡은 박동혁(54)씨는 '손맛'이 다르다고 말한다.

“뜰채로 한 번에 5마리씩 송어를 잡아요. 원래 낚시를 좋아했는데 뜰채로 잡는 손맛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이것만 하고 있어요.”

남해에서 서해로 올라가는 송어는 반드시 울돌묵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거센 물살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류가 느린 육지 근처 바닷가를 통과하는 것이다. '뜰채낚시'는 바닷가를 지나는 송어의 특성을 이용해서 잡는다. 조류의 흐름, 기상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하루 6시간 동안 300마리 이상을 잡기도 한다. 바닷가에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송어의 검은 등지느러미가 보이면 뜰채로 낚아채는 것이다. 일반 낚시에서 생선의 크기를 기록한다면 뜰채낚시는 마릿수를 기록한다. 7년 경력 박동혁씨의 기록은 19마리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해요. 눈 앞에 송어 떼가 지나가는 걸 뜰채로 잡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물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한쪽 발을 물속에 딛고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잡았어요.”



그는 울돌묵에서 잡히는 송어가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인천에서 군생활을 하며 송어낚시를 시작해 현재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에도 수차례 생선을 손질하는 박씨는 이곳에서 잡히는 고기는 단단한 육질과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특히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면서 송어들이 필을 다 토해내기 때문에 배속에 이물질이 없는 점을 강조했다. 울돌묵에서 송어회를 맛 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겠다고 한다. 하루에 수백 마리가 잡혀도 그의 가게에 송어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전국에서 송어를 찾는 주민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가 낚는 날에도 매일 울돌묵을 찾는 것은 손맛 때문만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내려

온 뜰채낚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러한 열정이 모여 지난 2004년 '울돌묵을 사랑하는 모임'이 시작됐다. 현재 15명 회원이 활동 중이다. 20년 이상 뜰채로 송어잡이를 한 회원도 있지만 직장생활에 바빠, 건강상 이유로 자주 찾지 못하고 있다. 울돌묵 근처에서 '명랑주막'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동혁씨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썰물 때는 어김없이 뜰채를 들고 나선다. “관광객들이 송어잡이를 보러 왔을 때 누군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앞으로도 송어잡이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해남=글·사진 양세영기자 hot@kwangju.co.kr

서태지, 16세 연하 배우와 결혼



가수 서태지(41·사진 오른쪽)와 배우 이은성(25)이 조만간 결혼한다고 서태지컴퍼니가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서태지가 지난 2008년 발표한 8집 수록곡 '버뮤다 트라이앵글'의 뮤직비디오에 이은성이 출연하면서 알게 돼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났으며 3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결혼식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으로 조만간 양 부모를 모신 가운데 조용히 치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태지는 이날 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을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의 짝을 찾았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나의 짝과 결혼하려 해”라고 팬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내 아내가 되어줄 사람은 배우 이은성”이라고 소개한 뒤 “사실 언젠가부터 인생의 동반자가 나타났다”고 말했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게 기적처럼 나의 짝이 나타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늘이 맺어준 감사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근 완공된 서태지 평창동 자택에서 서태지 부모와 함께 신혼 살림을 준비하고 있다. <연말뉴스>

한국기자협, 해직·현직기자 토론회

한국기자협회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정영팔·사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군부 독재에 펜으로 항쟁하며 투쟁에 힘을 보태던 언론인들을 기억하며 나아가 길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1980년5월20일 많은 기자가 군사정권의 기사검열을 거부하며 해직되는 아픔을 겪었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광주YMCA무진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당시 해직된 기자들과 현직 기자들이 모여 한국 언론의 현재와 내일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양세영기자 hot@

환자들에 피아노의 따뜻한 위로

피아니스트 한동일씨

21일 전남대서 '힐링 콘서트'

“아름다운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광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피아니스트 한동일(사진 오른쪽)씨는 지난해 11월 전남대 병원을 찾았다. 아내 이해현씨와 함께 진행한 듀오 연주회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10년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는 한씨는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광주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봉사하는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고 싶다”고 말해왔었다.

이날 송은규 전남대 병원장에게 “음악으로도 와드일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약속했던 한씨 부부가 전남대 병원 환자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마련했다.

오는 21일 오후 5시 전남대 병원 1동 로비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 한씨 부부는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피아노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1954년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한씨는 16세때 뉴욕 필하모닉 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1962년에는 케네디 대통령 초청



으로 파블로 카잘스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또 1965년에는 레너드 번슈타인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레벤트리트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한국인 최초 해외의 콩쿠르 우승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인디애나 주립대 등에서 교육자로 35년간 재직하며 수많은 연주회를 가져온 한씨는 지난

2005년 영구귀국했고 2010년부터 광주에 정착했다.

한편 전남대 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병원 로비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 환자와 병원 가족들에게 음악으로 위로하고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병원을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김미연기자 mekim@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완도경찰, 4대 사회악 근절 협의



완도경찰서(서장 양성진)는 지난 14일 오전 완도읍 성광노인복지센터에서 양성진 서장, 임재홍 센터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노인 학대, 장애인 성범죄 및 기타 등을 사전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이끄기 위해 마련됐다.

양 서장은 이날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12개 읍면에 있는 복지센터는 물론 어린이보호시설까지 사전에 철저히 순찰하고 상담하겠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경찰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jchung@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한중현(광주일보 총무부)·나선임씨 장남 성일군 문경환·김덕희씨 장녀 태화양=19일(일) 오후 2시 아름다운컨선 1층 티파니홀. ▲유복주씨 장남 정호기군 임명규(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이재숙씨 장녀 혜림양=19일(일) 오후 3시 더스타웨딩홀 14층 스타홀.

동창동문회

▲북성중 제16회 동창회(회장 최원섭) 월례회=16일(목) 오후 7시 수림식당 062-223-0028.

종친회

▲고세 광주중문회(회장 석태)정기총회=18일(토) 오전 11시 프라도호텔 3층연회장 010-5615-6784.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한국 애질런트 테크놀로지 CAG(화학분석그룹)=애질런트 광주 교육장 개소, 상무지구 우정청 맞은편 창호빌딩 4층 062-376-1981. ▲'금영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장애이동통합교육보조원사업단=저소득층 주민에게 특수교육실무사의 기술 교육 및 공동체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경제적인 자립 기회 제공, 광주 서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장애우 및 장애이동의 삶의 질 향상 기여.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2-3029.

▲친환경영농사업단=고연령, 저학력, 무기능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제조업체의 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 영농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정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

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모집

▲주간재활프로그램회원은만성정신질환을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주 5일)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062-233-0468. ▲승마체험 및 개인레슨=광주 광산구 오운동 465 광산승마랜드 010-8615-6500.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

모금회 지원사업' 장애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 교육생=교육대상은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선착순 15명), 교육기간은 4월~9월(주1회 오후 2시·교육비 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나눔교육 신장 안내=사랑의 열매에서 광주 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나눔교육을 실시, 참여 어린이 나눔문화 활동가 인증서 발급. 062-222-3566, 3567. ▲인애시니어 W-센터=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받으신 어르신(1~3등급, 시급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장소는 본선동 무등3차 APT 맞은편) 062-654-7777. ▲정서조치 및 학교폭력 예방 상담자 수강생=교육일시 4월 6일(토)~20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교육장소는 광산대학교 잔디관, (사)한국

청소년상담교육협회 062-652-0675, 010-8299-6237. ▲문화 축구단회원=북구 문화초등학교 매일 오전 6시 20분 010-8542-3366(이성희). ▲아름다운 가곡클래스 회원=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2013년 1학기 가곡교실(이태리, 독일, 한국가곡), 기초반 오후 7시~9시(수)/심화반 오전 10시~12시(토) 062-520-4243.

부음

▲김옥례씨 별세 최형진(광주중앙의원)·경자·경숙·경관(중앙치과의원)·경이(조대부고)씨 모친상 유근덕(신북중학교)씨 시모상 황공선·김상형(IBK)·노승용(서울여자대학교)·유승태(오랜지의원)씨 빙모상=발인 16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부향소 062-231-8901.

Advertisement for a memorial service for Kim Gyeong-sun (88 years old) and Kim Gyeong-soon (78 years old).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service location,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uneral home, Myeongho Memorial Service.